

# “농사 짓고 전기 팔고”…고흥형 햇빛연금 본격 시동

郡,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MOU  
민·관·연…2033년까지 고흥만 실증 연구  
공영민 군수 “부가수익 창출·농민 연금화”

고흥군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 병행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보급·민·관·연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 힐에서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유에너지와 함께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30억

원을 투입한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년(과제 수행 3년, 성과 유지 5년)간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고흥의 기후환경과 토양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데 있다.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고흥의 주요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설비 구조와 광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협약에 따라 ‘고흥군’은 실증단지 부지 제공과 배전선로 설치 등 행정 지원을 종괄하며, 주관기관인 ‘유에너지’는 설비 설계·시공과 기술 관리를 담당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작물 생육환경 검토와 데이터 검증 등 기술 자문을 수행한다.



공영민 고흥군수(기운데)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 힐에서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유에너지 관계자들과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특히 이번 R&D 사업에는 (유)흥양테크, (유)흥양에너지, (주)고흥해밀솔라, (주)고흥 등 지역

향토기업들이 시설물 설치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들 기업은 향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주도하며,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법 제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R&D 사업을 유치했다”며 “고흥의 토양과 기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완성해 농민들이 농업소득 외에도 ‘햇빛연금’이라는 부가소득을 얻는 ‘농민 연금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향토기업들과 협력해 영농형 태양광의 단계적 확산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 보성 열선루, ‘이순신의 결의’ 빛으로 선사

역사문화공원 준공 기념 내년 2월까지

야간 경관 운영…체류형 관광 활성화

이순신 장군의 충의와 책임의 정신이 깃든 보성 열선루가 겨울밤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18일까지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이번 경관 조명은 2025년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준공을 기념하고, 겨울철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원 전반에 걸쳐 조성된 조명 연출은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겨울밤의 정취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공원 현장에서



‘보성 열선루 이순신의 결의, 빛이 되어 나리다’를 주제로 점등식을 개최해 열선루가 지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성의 겨울밤을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보성=임병언 기자

경관 조명 운영 기간에는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야간 관광안내소도 상시 가동한다.

안내소에서는 ▲보성 문화유산 및 역사 해설 ▲관광 동선 및 주변 관광 정보 제공 ▲현장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성 열선루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던 역사적 성소로, 충성과 책임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다. 군은 이번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와 서사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성을 대표하는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의 충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열선루에서 특별한 겨울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을 활용한 계절별·주제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례군, 상수도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 8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취득

구례군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구례군 상수도 운영인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2급 1명, 3급 4명이 취득했으며, 상수도관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을 3명이 취득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으로,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정수 생산부터 관로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수도 운영 전

과정의 기술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현장 운영인력이 업무와 병행하며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수질 안정성 확보, 시설 관리 효율 향상, 사고 예방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상수도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공공시설인 만큼,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상수도 운영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 담양군, 미래 농업발전 청사진 공유

### 농기센터서 종합 평가회 개최

### 신기술 보급·결과물 전시 눈길

내년도 사업 계획반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보고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실물 위주의 전시를 병행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브로콜리 새싹을 활용한 설포리판 제품화 상품을 비롯해 가능성 토마토 ‘루비밸’, 담양 명품 팔기 ‘죽향’ 등 주요 성과물이 전시돼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군은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담양 팔기 재배단지 확대 보급과 가능성 토마토 ‘토담토담’ 확대 재배 등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만족도 높은 농정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곡성군, 내년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 군 방문·관광객도 이용 가능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면, 담양읍-옥과면 노선 중 담양 구간 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와 곡성군 관내를 운행하는 타 시군의 운수사의 노선은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곡성군은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통해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이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장성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폐회

내년 본예산 6천36억원 확정

행감 199건 시정·개선 요구

장성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천36억원으로 확정하고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22일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군정 주요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가장 관심을 끈 2026년도 본예산은 예산결산

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관리 대책 부실 등이 꼽혔다.

민생과 관련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춘경 의원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15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이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심민섭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이 장성군 역사상 처음으로 6천억원을 넘어서 만큼, 그 혜택이 군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을 한 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여수시, 11번째 웹드라마 ‘더 섬’ 제작 돌입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낭도·추도·적금대교 등서 촬영

여수시가 내년 3월 배포를 목표로 열한 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더 섬(The Island)’의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사진>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여수의 섬에서 태어나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5명의 등장이 경쟁사회 속 상실과 갈등을 마주하며 세대 간 오해와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총 5화, 50분에 담았다.

1화 이 밤을 다시 한번, 2화 꿈결 같은 세상, 3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4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5화 사랑의 셀룰로 이어지며 “찢어진 지도”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의 몰입도와 재미를 높인다.

주인공들은 서로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회복

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아가는 여정이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특히, 도해(島海)와 그의 아들 대현이의 영혼이 뒤바뀌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번 이야기는 세대 간 갈등과 이해를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내다.

극 중 달이는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여수의 11개다리(일례본 브리지)를 상징하며, 이번 작품이 여수시의 11번째 웹드라마라는 점과도 맞물

/여수=김진선 기자

